

연중 제 22주일 (다해)

시편 68 (67)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혜로이 집을 마련하셨나이다

1.의인들은 기뻐하며 춤을 추리라 하느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너희는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그이름 찬송하여라 그이름 주님이시다

2.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보호자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외로운이들에게 집을 마련해주시고 사로잡힌이들을 행복으로이끄시네

3.하느님 당신은 넉넉한 비를 뿌리시어 메말랐던 상속의 땅을 일구셨나이다

당신백성이 그곳에 살고 있나이다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혜로이 마련하셨나이다